

# 『프랑켄슈타인』으로 살펴보는 소외계층

영어영문학과 202221677 정소연

## 목차

1. 서론
2. 디지털 소외계층
  - 2-1. 디지털 소외계층이 겪는 어려움
  - 2-2.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해결방안
3. 장애인
  - 3-1. 장애인들이 겪는 일상에서의 불편함
  - 3-2. 장애인들을 위한 해결방안
4. 외국인 근로자
  - 4-1. 외국인 근로자들이 겪는 부담함
  - 4-2.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해결방안
5. 결론

## 1. 서론

<프랑켄슈타인>의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새 생명을 창조해낸다. 그러나 빅터는 그가 만들어 낸 창조물의 겉모습이 보통의 인간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를 괴물 취급하고 결국 버린다. 빅터의 피조물인 괴물은 처음부터 괴물이 아니었다. 괴물은 사람들과 어우러지기 위해 언어를 배우고 공동체에 속하려 노력한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 사이에 속하지 못하고 보통의 사람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한다. 이런 괴물의 모습은 현대 사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의 모습을 대변해준다. '소외계층'이란 '사회의 여러 복지 정책이나 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도움이 필요한 계층'이다.<sup>1)</sup> 소외계층에는 '디지털 소외계층',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가 있고, 이들 각자를 위한 해결방안에는 '디지털 기기 보급, 키오스크의 개선, 장애인들의 버스탑승을 위한 어플 도입, 휠체어 지정좌석 설치, 외국인 근로자 관련 법 개선, 산업재해 안전교육 실시'가 있다. 요즈음에는 소외계층을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글에서는 앞서 언급한 소외계층들을 위한 해결방안을 자세히 다루어 볼 것이다.

## 2. 디지털 소외계층

### 2-1. 디지털 소외계층이 겪는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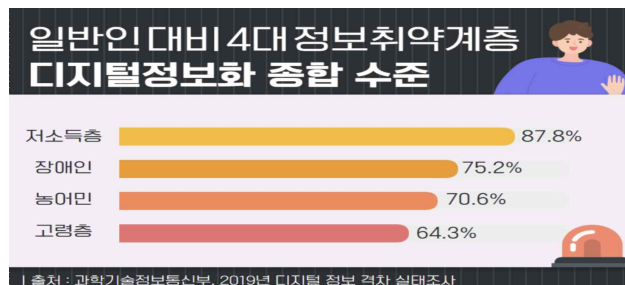
'디지털 소외계층'이란 비대면 서비스와 같은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기 힘들어 생활의 불편함을 겪는 계층이다. 언젠가부터 '키오스크'(터치스크린 방식의 무인 정보 단말기)가 여러 가게에 도입되어 점원이 주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일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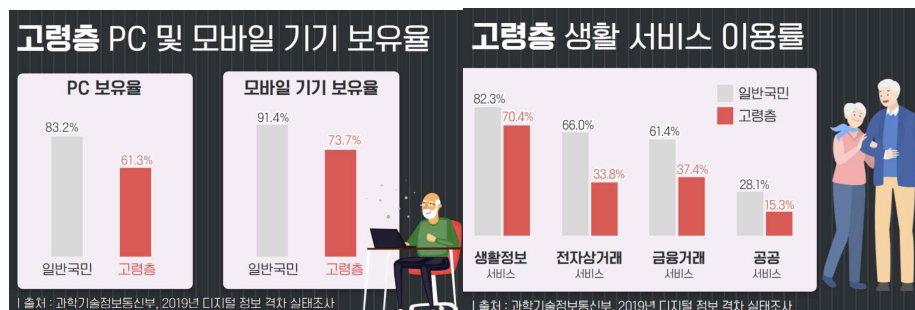
1) '소외계층', 네이버 지식백과,

<https://ko.dict.naver.com/#/entry/koko/22c4f40314794dbf9bc345cb896a>

이 되었다. 또한 병원 예약을 할 때, 기차를 예매할 때, 택시를 탈 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플이나 인터넷으로 예약을 미리 받는 곳이 늘어났다. 인터넷 사용에 능숙한 사람들은 비대면 접촉과 휴대폰 어플, 인터넷 활용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지만 디지털 기기 사용을 하지 않거나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것이 현실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9년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민, 고령층이 디지털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2)



또한 디지털정보화 종합 수준이 가장 낮은 고령층의 경우 가구 내 pc보유율은 일반 국민의 보유율보다 21.9%p 낮으며 고령층 생활 서비스 이용률 표를 보면 일반 국민에 비해 고령층이 생활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 2-2.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해결방안

첫 번째로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는 것이다. 경상남도의 '경남바로서비스'에서는 디지털 기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저소득층, 장애인 등을 위해 '사랑의 그린 pc보급사업'을 지난 5월 실시하였다. 400대의 기기를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 사업이었다. 이처럼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 자체를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기보급을 하는 것은 디지털 소외계층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디지털 보급은 급변하는 사회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디지털 이용의 접근성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며 가장 기초가 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음식점을 비롯한 가게에 있는 키오스크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0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노인 중 64.2%가 키오스크를 통한 주문이 어렵다고 응답했다.(출처-기사-주석에 달기) 노인들이 키오스크 사용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화면에 있는 기기의 복잡성, 글씨의 크기,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 예를들어 음식점의 키오스크는 대부분 사용설명이 나와있지 않고 한 화면에 많은 선택지와 정보가 담겨져 있어 키

2) '점점 커져가는 디지털 정보 격차, 모두가 편할 수 있을까요?', <잡아바>, <https://www.jobaba.net/thema/2545/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

3) '점점 커져가는 디지털 정보 격차, 모두가 편할 수 있을까요?', 앞의 글

키오스크가 생소한 노인들에게는 사용이 어렵다. 또한 키오스크 화면의 작은 글씨는 시력 저하가 일어나는 노인들이 화면을 보기에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덧붙여 사용이 어려운 노인들이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줄을 선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키오스크의 형태가 지금과는 다르게 바뀔 필요가 있다.

키오스크 화면의 직관성이 떨어지는 점, 단계가 복잡한 점을 보완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easy order' 항목을 추가하여 키오스크로 햄버거를 주문하는 10단계를 5단계로 줄인다. 주문에 꼭 필요하여 선택해야 할 부분을 강조하고 주문에 필요없는 부분을 반투명화 시켜 주문자가 주문을 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디지털 기기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원래 사용하던 일반 방식으로, 디지털 소외계층은 쉬운 버전으로 접근하여 두 집단 모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처럼 많은 가게에서 사용되는 키오스크 사용방법만 개선시켜도 고령층을 비롯한 디지털 소외계층이 느끼는 일상적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

디지털 기기 보급과 현재 많은 가게에서 사용되는 키오스크의 개선을 통해 디지털 소외계층이 느끼는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이런 사업과 연구가 이루어짐에도 사각지대에 있는 디지털 소외계층이 있기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심을 기울여 더 많은 이들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

### 3. 장애인

#### 3-1.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함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이용한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이용하기 어려운 대중교통이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시각장애인, 휠체어에 탑승하는 장애인들이다. 2020년 한국시각장애대학생회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2%의 응답자가 버스를 가장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수단이라고 응답했다. 소리만으로 탑승 버스를 찾기 어렵고 승차문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 또한 어렵기 때문이다. 버스가 도착할 때 안내음성이 뜨지만, 여러 버스가 한꺼번에 도착하거나 사람이 몰린 경우 버스번호를 인지하여 찾는 것은 이들에게 더욱 어려운 일이다.

또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에게도 버스 탑승은 어렵다. 저상버스가 널리 퍼졌지만 아직까지 계단이 있는 버스가 많으며 슬로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버스가 많다. 이는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의 탑승을 어렵게 만든다. 휠체어를 타는 사람의 비율이 그렇지 않은 사람의 비율보다 훨씬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소수라고 해서 그들의 탑승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게 해서는 안된다. 시각장애인과 휠체어탑승 장애인들이 어떻게 하면 버스를 탑승하는 데에 있어서 이전보다 편리해질 수 있을지 모색해야 한다.

#### 3-2. 장애인들을 위한 해결방안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해결방안으로 '버스로'라는 어플이 개발되었다. 시각장애인들이 버스 위치를 찾기 어려워할 때는 어플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면 된다. 어플에 탑재된 AI가 버스의 번호를 인식하고 진동횟수로 거리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버스에 가까워질수록 진동횟수가 늘어나고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버스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만든다. 또한 버스에서 내릴 때에도 도움을 준다. 하차벨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이들을 위해 어플 내에 하차벨을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였다. 이러한 어플은 시각장애인의 버스 탑승에 도움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더 잘 구축되어야 한다

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어플 개발자가 비영리로 운영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많기에 국가적으로도 장애인들을 위한 단체에 금전적 지원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휠체어 탑승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저상버스에 접이식 슬로프를 설치하는 것이다. 버스에 계단이 없는 저상버스라고 하더라도 높이가 있으면 휠체어를 탄 사람들은 버스에 탑승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휠체어 지정좌석을 버스 내에 설치하는 것이다. 일반 좌석 한 개를 없애고 그 공간에 휠체어 탑승자가 고정될 수 있게 한다. 휠체어를 탄 사람이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지정좌석 정면에 안전바를 설치하는 것 또한 휠체어 사용자가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하게끔 할 수 있다. 차내에 휠체어 탑승자 지정좌석과 일반좌석, 안전바의 위치 등을 탑승자 서로의 동선에 방해하지 않게끔 설치하면 비장애인과 장애인 둘 다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휠체어 탑승자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예를들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의 요구로 전동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고속버스를 운행했지만 현재는 중단된 상태이다.<sup>4)</sup> 그 이유는 휠체어를 탑승하는 사람의 비율이 전체의 0.3%로 저조했기 때문이다. 또한 버스에 설치한 휠체어 리프트는 고장이 잦고 이를 운용하기 위한 별도의 기사 교육도 필요하기에 버스 운행 회사에서도 불만의 입장이 나왔다. 이는 휠체어 탑승자에 대한 개선방안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과 장애인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휠체어 탑승자의 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위한 해결책을 끊임없이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전동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고속버스의 운행이 중단되었지만 다른 방법을 계속해서 모색해야 한다. 화성시에서는 지난 12월 12일 '장애인 휠체어탑승자 동행운행' 시승식을 열었다. 일반석 21명, 휠체어석 8명을 설치한 이 버스는 앞으로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맞춤형으로 운영 될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비장애인의 탑승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휠체어 탑승자들을 위한 버스를 늘리는 시도를 하는 것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휠체어 탑승자들을 위한 해결방안일 것이다.

### 3. 외국인 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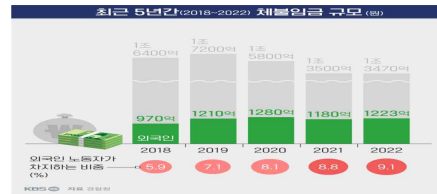
#### 3-1. 외국인 근로자들이 겪는 부당함

'외국인 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를 말한다.<sup>5)</sup> 외국인 근로자들이 겪는 부당한 일 중 대표적인 일이 '임금체불'이다. 임금체불은 외국인 근로자가 원래 받아야 하는 돈의 액수보다 적게 받는 경우, 받아야 하는 돈이 전부 밀리는 경우,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는 경우 등이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왔지만 한국어가 서툴고 외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임금체불을 하는 사업장이 아직 만연하다. 이를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되고 있지만 법을 교묘하게 피하는 사각지대에선 여전히 임금체불이 일어나고 있다. 아래의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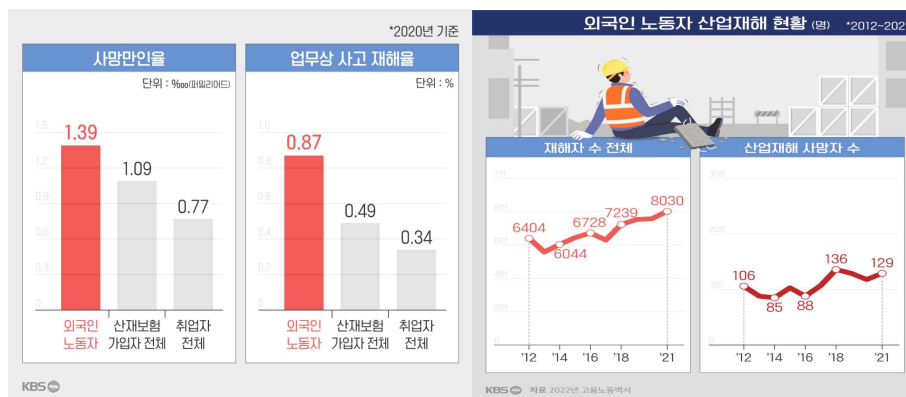
4) [단독] "탑승률 0.3%뿐" 전장연 요구 '휠체어 고속버스' 올스톱, <중앙일보>, 2023.09.0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0946#home>

5) 외국인근로자 취업 및 체류자격,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3&ccfNo=1&cciNo=1&cnpClsNo=1>

면 최근 2018년부터 2022년간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의 액수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유지되거나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산업재해'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산업재해'란 노동과정에서 작업 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말한다.<sup>7)</sup> 예를들어 건설업 관련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손가락이 잘리는 경우가 있었고, 방진마스크가 없이 쇳가루가 날리는 금속 연마 작업을 하다 1년 채 안되어 간질성폐질환을 판정받은 외국인이 있었다. 이처럼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것이 힘들게 현실이다. 정당한 대우에 대한 소리를 높이면 일자리를 잃을 수 있고, 외국인 신분으로 같은 계열 다른 회사에 취직하는 것 또한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이주노동자 산업안전보건 현황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만인율'과 '업무상 사고 재해율'이 외국인 노동자가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22년 고용노동백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



### 3-2.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해결방안

앞서 언급했듯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이 모든 사업장과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 문제로 사업주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였을 때 사업주는 부인하며 사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법적 조치를 하

6) 외국인 노동자 처우가 열악하다는 건 과장된 사실일까 [팩트체크K], <KBS뉴스>, 2023.06.19., 경찰청, 최근 5년간 체불임금 규모

7) '산업재해,'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08631&cid=40942&categoryId=31846>

8) 외국인 노동자 처우가 열악하다는 건 과장된 사실일까 [팩트체크K], <KBS뉴스>, 2023.06.11., 고용노동백서, 2022

려고 하면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기숙사에서 내쫓거나 언어적 폭력을 가하거나 해고를 시키는 등 갑질을 하고는 한다. 이처럼 사업주가 조사를 거부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구제 절차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체류만류일이 다가오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약점이 된다. 또한 법적 조치를 하는 그 기간 동안의 한국에서의 생활적 비용이 부담될 수 있다. 이처럼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 방법으로는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구제절차에 들어갔을 때 사업주에게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예를들어 구제 절차 기간 중 발생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적 비용,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손해배상들을 사업주가 책임질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임금체불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임을 묻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임금체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임금체불 구제절차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만료일을 늘리는 것 또한 이들을 위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이미 구제절차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비자(G-1)이 있긴 하지만 받는 절차가 까다롭고 이 비자는 경제활동을 위한 비자가 아니기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구제 절차 기간 동안에도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주고 체류 만류일을 늘려주는 것이 이들을 위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재해를 막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으로는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미리 건강검진을 다 실시하고 정확한 검사결과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또한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위험한 곳에는 여러 명을 배치한다든지, 기계로 일을 대체한다든지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런 사업주가 많지 않다는 점이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최대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현재 플랫폼을 이용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의견 제시가 있다. 이 플랫폼의 이름은 '스마트 안전TBM'이다. 먼저 교육 시작 전 출결을 플랫폼으로 관리한다. 필수안전교육 이수 및 출근 시간 기록을 위해 'NFC'카드 등을 이용한 실시간 태깅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또한 안전교육 콘텐츠는 사업주와 근로자 따로 제시되어 있다. 사업주가 보는 콘텐츠는 안전보건교육 이수 현황 모니터링에 초점을, 근로자가 보는 콘텐츠는 본인의 업종에 맞는 안전보건교육, 안전사항 등에 대한 정보에 초점을 맞추어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교육이수 인증을 위해 어플에 전자서명 기능을 탑재한다. 수기로 작성하는 교육이수 인증 서명은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사업주, 외국인 근로자들 모두 일하는 현장에서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정확하게 안전수칙을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 또한 안전교육을 필수로 받게 하는 것이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서 설명한 어플과 같은 플랫폼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는 환경에 널리 보급되어야 한다.

#### 4. 결론

앞서 소외계층들이 겪는 어려움을 알아보았다. 디지털 소외계층,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들은 일상에서 어려움과 부당한 일 등을 겪는다. 디지털 소외계층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는 방법과 키오스크를 개선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탑승 장애인들은 버스 탑승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버스에 탑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플을 도입하는 것과 이를 위해 어플 개발자들에게 경제적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 버스에 휠체어 지정좌석을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임금체불, 산업재해와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법 개선, 산업재해 안전교육의 방법이 있다.

우리는 일상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여러 정책을 도입하고 개선시켜 나가는 과정들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일원인 소외계층들을 적극적으로 보살펴야 할 것이다. 또한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더 많은 관심으로 알아채고 다 같은 사회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국내논저

양형규, <작업시작전 현장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개선을 위한 스마트안전교육 플랫폼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재난안전학학과간 협동과정, 2022

오암석, <디지털 소외계층의 무인주문기기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인터페이스 설계>,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 26, No. 11: 1592~1598, Nov. 2022

유승희,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와 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제 12권 2호, 2022

김기원,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의 저상버스 개선방안>,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2023

### 2. 뉴스 기사

“시각장애인이 버스 타는 세상을 꿈꿉니다”, <더 나은미래>, 2022.07.20.,  
<https://www.futurechosun.com/archives/66714>

‘대중교통 강국일까? “시각장애인 버스 이용 여전히 어렵다”’, <소셜포커스>, 2019.12.09.,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43>

‘화성시, ‘장애인 휠체어탑승버스’ 시승식 열어…29인승 1대 운영’, <쿠키뉴스>, 2023.12.13.,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12130137>

‘외국인 노동자 처우가 열악하다는 건 과장된 사실일까 [팩트체크K]’, <KBS뉴스>, 2023.06.11.,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696344>

### 3. 기타 온라인 자료

‘소외계층’, 네이버 지식백과,  
<https://ko.dict.naver.com/#/entry/koko/22c4f40314794dbfbc0f9bc345cb896a>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그린 PC 신청하세요!’, <경상남도>,  
<https://blog.naver.com/gnfeel/223088072478>

‘점점 커져가는 디지털 정보 격차, 모두가 편할 수 있을까요?’, <잡아바>,

<https://www.jobaba.net/thema/2545/03>

‘외국인 근로자 취업 및 체류자격’,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3&ccfNo=1&cciNo=1&cnpClsNo=1>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3065&efYd=20221211#0000>

‘산업재해’,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08631&cid=40942&categoryId=31846>



